

1967年度의 特殊圖書館界

成 宅 慶

(國會圖書館)

1. 序 言

1967년의 始務式을 어제 그적게 한듯한데 벌써 上記와 같은 論題를 編輯者로 부터 請託받고 새삼스럽게 '켈린더'를 훑어 보게 되었고, 또 性急한 茶房에서의 '정글·벨' 소리에 이해도 저물어감을 實感하게 된다.

이렇게 歲月가는 줄을 모르도록 지나니 흔히 日常人事말로 하는 '歲月이 너무 좋아서' 그렇지 않은가 하고 誤解할 분도 있겠으나, 나 個人的인 면에서는 지난 一年동안 너무도 한일이 없고, 또 實績없이 새해를 맞게됨에 有限한 歲月을 값없이 虛費하였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1967年은 우리 特殊圖書館界의 全體의인 면에서 볼때에는 過去 어느해 보다도 가장 發展이 많았던 해라고 생각된다.

2. 特殊圖書館의 定義

論題와는 若干 辻나간 이야기 같지만 지난 第6回特殊圖書館大會에서도 말이 있었고, 또 特殊圖書館界의 1年을 回顧하는 本稿에서 한번 言及해야만 될것 같기에 누구나가 잘 알고 있겠지만 特殊圖書館의 定義를 다시 한번 確認하고 지나가는 것이 뜻이 있지 않을까 믿는다.

우리나라에서 普通 圖書館의 種類를 公共, 大學, 學校, 特殊 四館種으로 나누고 있는데(圖協에서의 分類임) 그중 「特殊圖書館」이라는 「카테고리」는 確實하고 獨特한 色갈이 없는듯 하다.

特殊圖書館이라 하면 그廣義로 봐서는 一般圖書館, 即 公共圖書館에 相對되는 말로써 公共圖書館以外的 모든 圖書館이 다 包含된다고 본다. 그래서 獨逸에서는 「學術圖書館」과 「民衆圖書館」 두가지로 나누고 있기도 하다.

좀 더 正確한 定義를 짓는다면 特殊한 專門의인 資料를 蒐集하여, 特殊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特殊한 利用者를 對象으로 하는 圖書館이 特殊圖書館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狹義의 特殊圖書館이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特殊한 生活環境에 있는 사람들을 對象으로 하는 圖書館, 即 盲人圖書館(點字)이나 病院圖

書館(療養者를 위한 施設), 矯導所圖書館等이 이에 屬한다.

韓圖協의 統計에 나타난 99個의 特殊圖書館 가운데 이러한 狹義의 特殊圖書館種에 屬하는 것은 國立小鹿島病院圖書館뿐인것으로 알고 있다. 그외는 그 設立者의 類型別에 依해 區分된 大學, 學校의 圖書館들도 廣義의 特殊圖書館에는 다 포함된다.

3. 特殊圖書館을 專門圖書館으로 再分類

廣義의 特殊圖書館가운데서 設立者의 類型에 따라 大學(初大, 單大, 綜合大), 學校(初·中·高等學校)圖書館만을 따로 區分하고 餘他的 것을 모두 묶어 이 特殊圖書館種에 分類 集計한것이 全國에 99個館이 된 것이다. (1967年3月31日 韓圖協의 圖書館一覽에 依함)

이 가운데는 公共圖書館의인 性格 및 資料를 가진 圖書館, 或은 大學圖書館의인 性格의 圖書館도 다 함께 포함 되어 있고 그 資料面에서 볼때 或은 運營面에서 볼때 共通分母的인 理論이나 體系를 到底히 導出해 낼 수 없다는 것이 現特殊圖書館部會의 實情이다.

故로 韓國圖書館協會의 特殊圖書館部會를 中心으로 하는 團體活動이나 共同步調한 活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가장 比近한 例로써 每年 韓圖協主催로 實施되는 圖書館大會만 하여도 영 맥이 빠진것이 되고 만다. 왜냐 하면 發表하는 論題가 聽衆들이 屬해 있는 各己職場에서 惹起된 問題와 相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에서 잠깐 「學術圖書館」과 「民衆圖書館」 두가지로 나누는 나라도 있다고 했듯이, 이 特殊圖書館의 使命이란 公共圖書館의 使命보다는 더 積極的인 學術活動, 專門知識에 關한 調查研究活動에 이바지 해야 한다. 그러한 이 特殊圖書館에서는 豫算面에서도 넉넉지 못한 現實情下에서 共同步調해서 遂行해야 할 活動이 많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經濟分野의 資料를 많이 가진 圖書館끼리의 어떤 共同活動이라던지 法律關係 資料를 收藏한 圖書館끼리의 어떤 共同活動이 이루어진다면 圖書館奉化의 成果는 大端히 클것으로 안다.

우리의 圖書館界에도 이제는 어떤形式에만 拘礙되지 말고 內容的인 면에서 알찬 奉仕가 이루어져야 할 時

期가 到來한것으로 안다. 그렇게 하려면 現在 特殊圖書館部會에 屬한 圖書館과 大學圖書館部會에 屬한 圖書館間에도 그 所藏資料의 性質에 따라 어떤 有機的인 關係를 지워서 活動하는 方法이 摸索되어야 할것 안다.

勿論 現在の 韓國圖書館協會의 設立者別로 區分한 公共, 大學, 學校, 特殊圖書館 四部會에도 그것대로 意義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 資料面에서 專門別로 區分된 어떤 連繫가 必要하다는 말이다. 그 名稱은 어떤것이던 資料面에서 專門別連繫가 이루어 짐으로 因해서 協會를 中心으로 한 共同活動이 活潑히 展開될 것으로 期待된다.

4. 全國特殊圖書館의 成長과 그 展望

每年 協會가 集計 發刊하고 있는 統計(韓國圖書館一覽)에 依하여 1955年以來 特殊圖書館의 館數, 職員數 및 藏書數의 年間增加 沿革을 한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年度別	館數	職員數	藏書數
1955年	15個館	103人	187,374책
1956年	31個館	168人	265,172책
1957年	42個館	202人	442,153책
1958年	41個館	174人	470,445책
1959年	45個館	183人	509,256책
1960年	41個館	188人	494,284책
1961年	統計表가 發行되지 못했음		
1962年	46個館	245人	552,884책
1963年	66個館	309人	659,087책
1964年	72個館	420人	541,284책
1965年	71個館	472人	623,850책
1966年	81個館	520人	827,864책
1967年	99個館	558人	912,134책

豫算面에 있어서는 1966年에 全國의 特殊圖書館의 것을 다 습한것이 1억여원이던것이 1967年에는 약 80% 增加하여 1억8千餘萬원이 되었다.

圖書館數에 있어서도 1966年에 81個館이던것이 1967年에는 99個館으로 18個館이 늘어났다. 其中 1966年 集計에는 收錄되었던것이 1967年의 集計에서는 漏落된 圖書館(京鄉新聞, 國立保健院, 陸軍本部政訓監室, 陸軍本部情報參謀部, 法務部 等임)이 5個館이었는데 이 圖書館들도 있던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만 圖書館으로 名實을 갖추지 못했으니 一覽에서 뽑아 달라는 自請에 依해 뽑은 곳과 或은 統計資料의 未蒐集으로 다만 漏落된것으로 看做할 수 있다. 故로 1967年에 實質的으로 新設된 圖書館(이중에는 오래전에 設立되었는데 다만 協會의 「圖書館一覽」에 처음 收錄된 곳이 많음) 數는 23個館이 되는데 그 名單을 보면 다음과 같다.

新設 圖書館 名單

- (1) 建設部
- (2) 國立水產振興院
- (3) 金星社
- (4) 大韓教育聯合會
- (5) 大韓貿易振興公社
- (6) 大韓造船公社
- (7) 大韓住宅公社
- (8) 大韓體育會
- (9) 大韓通運公社
- (10) 라이브러리 서비스 센터 (美八軍內)
- (11) 釜山商工會議所
- (12) 釜山市政資料室
- (13) 商工部
- (14) 生活
- (15) 서울新聞社
- (16) 서울銀行
- (17) 園藝試驗場
- (18) 援護處
- (19) 유네스코韓國委員會
- (20) 梨花女大附屬病院
- (21) 鍾根堂製藥社
- (22) 韓國綜合技術開發公社
- (23) 湖南肥料株式會社

위에서 列擧한 新設圖書館들을 그 性質에 따라 檢討하여 보면, 產業·經濟分野의 圖書館이 23個館中 14個館으로써 當然 第1位로 약 61%에 該當하고 此外에는 教育, 體育, 軍, 社會, 言論, 病院 等 그性質이 雜多하다.

以上에서 特殊圖書館의 成長 趨勢를 보면 우리는 무엇 한가지를 指摘할 수가 있다. 即 國家의 政策에 副應하여 產業·經濟分野에서 活潑한 奉仕가 要請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奉仕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豫算的인 措置가 앞서야 하는데 1966年과 1967年 사이 豫算面의 增加도 또한 刮目할만한 展望이 있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이나라에서 어느 圖書館種보다도 過去에 가장 沈滯되었었다고 볼수 있는 特殊圖書館界에도 이제 새로운 曙光이 비친다고 筆者는 생각한다.

大企業體에서, 큰會社에서 주먹구구식 運營을 벗어나 合理的이고 科學的인 運營을 위하여, 世界市場에 競爭하기 위하여, 各己 分野의 特殊專門資料를 蒐集하여 專門的인 調査·研究에 資料面에서 奉仕가 必要不可缺한 要請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奉仕의 要請에 應하려면 우리 圖書館들은 前述한바 있는 主題別 專門圖書館間에 連繫를 가지고서 學界와 더불어 渾然一體가 된 奉仕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特殊圖書館의 奉仕를 遂行하는데 이 미 先進國에서 開拓해 놓은 視覺聽資料에 依한 圖書館 奉仕와 도큐멘테이션에 依한 方法이 크게 '크로즈업'된다.

5. 特記事項

1967年에 우리 特殊圖書館에 있었던 일과 또 特殊圖書館과 連關이 있는 일, 두 세가지를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적어본다.

첫째國會圖書館에 收受된 美國議會圖書館所藏 「日本外務省, 陸·海軍省의 一般文書 및 機密文書」의 마이크로 필름을 들수 있다. 이 「마이크로·필름」은 1868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2百餘萬페이지의 公文書를 複寫한 2,116필의 龐大한 資料인데 620餘萬원으로 購入했다.

그리고國會圖書館司書局內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書誌를 擔當하는 參考書誌課가 增設되어 各種書誌資料를 發行하고 있는데 1967년에 發行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國會圖書館報(定刊物)
- (2)新着圖書連報(定刊物)
- (3)國內雜誌記事索引(定刊物)
- (4)韓國史研究文獻總目錄(單行本)
- (5)韓末雜誌總目次索引(單行本)
- (6)西洋本韓國文獻目錄(單行本)
- (7)國會圖書館西洋書藏書目錄(單行本)
- (8)學術雜誌綜合目錄(外國語篇)(單行本)
- (9)韓國英文雜誌記事索引(韓國에서 出版된)(單行本)
- (10)韓國英字新聞記事索引(單行本)
- (11)韓國動亂에 關한(西洋)文獻目錄(單行本)

둘째로 아직 「韓國圖書館一覽」에도 收錄되지 않았지만 特殊圖書館으로써 큰 圖書館이 될 財團法人 韓國科學技術研究所의 圖書館에 對한 消息이다. 이 研究所는 존슨 美大統領이 來韓하여 韓國政府와 約束에 依해 設置되는 技術研究所으로써 그 圖書館이 앞으로 자못 期待되는바 크다.

서울東大門區 洪陵에 자리 잡은 이 研究所는 지금 그 廳舍가 新築中에 있고 또 一部는 完成되었는데 圖書館은 本館4층에 300餘坪을 차지 하게 된다. 그 圖書館의 計劃을 대충 들어보면 앞으로 5年內에 純科學·技

術에 關한 最新刊書 10萬藏書를 갖출 豫定으로 1967년에 이미 3~4萬卷이 發注되었고 雜誌도 700餘種 購讀 豫定이라고 한다. 이 圖書館의 豫算은 美國資料의 購入은 外資(AID)에 依해서 餘他資料는 內資(國家豫算)로 購入된다고 한다. 視聽覺器材도 훌륭히 다 갖출 豫定이며 이 圖書館이 完成되면 同研究所 뿐만 아니라 對外的으로도 研究機關 學者들에게 까지 奉仕할 方針이라 한다. 同研究所의 Training Program에 依해 圖書館職員으로써 訓練을 朴啓弘氏가 이미 받고 와서 現在 勤務中이다.

세째로 우리圖書館과는 四寸格이 되는 韓國技術情報센터(KORSTIC)가 購入한 마이크로 寫真機 및 各種 複寫·印刷機에 對한 消息이다. 앞에서 잠간 言及한바와 같이 特殊圖書館의 奉仕에서 우리는 이 「마이크로·필름」 및 資料의 複製 施設과 또 KORSTIC과 밀접한 聯關을 가져야 할줄 안다.

今年에 KORSTIC에서 購入한 機材는

- (1)高性能마이크로·필름카메라 2臺
- (2)마이크로·필름 自動現像機 1臺
- (3)마이크로·필름 擴大機 2臺
- (4)印書·水洗機 2臺
- (5)印書·乾燥機 1臺
- (6)마이크로·필름 리더 리더(閱覽機) 1臺
- (7)마이크로·카아드 리더(閱覽機) 1臺
- (8)제록스 1385型 1臺
- (9)에레팍스 마이크로·필름 擴大機 1臺
- (10)印刷器材: 유세트印刷機, 製版機 等外

47,000弗의 器材를 購入하였다. 위의 機械들의 詳細한 用途에 對해서는 筆者도 門外漢이며 다른 機會 仔細한 說明이 있을 줄 믿는다.

이러한 훌륭한 施設을 갖춘 KORSTIC은 技術科學에 關한 世界의 어느곳의 情報文獻이던 國內研究機關에 迅速히 提供해 줄수 있을줄 안다.

(5面에서 繼繼)

9. 맺는 말

以上으로 大略 1967年度의 公共圖書館의 발자취를 더듬어 그 얼은바를 거두어 보고자 試圖하여보았으나 公共圖書館으로 넘어온지 얼마되지 않아 보다 자세한 部分에 까지 힘이 미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앞에서 論한바 있지만 公共圖書館에 와서 보니 무언가 새로운 自覺의態度들을 몸으로 많이 느끼곤 한다. 이제까지 너무나 一方的으로 技術面에 치우

쳐 大學이나 特殊圖書館에만 몰렸던 우리 司書들의 公共圖書館에로의 많은 轉職을 바라며 祖國의 近代化過程에 앞장서 文化遺産의 繼承과 社會文化育成에 발마추어 나가기를 期待한다.

그레도 지난 1年동안 公共圖書館分野에서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나마 특히 같은 圖書館司書들마저도 度外 視하던 「츨고 배고프고 불쌍한 存在이니 봐주자」는 公共圖書館에서 一線司書들의 努力을 人間의 努力으로 克服하여 많은 問題들을 問題삼고 解決하였음에 새삼 느끼는 바 많다.